

地名命名空間의 形態와 相貌的知覺의 地形保全的 考察

—경상남도의 ‘목’마을¹⁾을 대상으로—

姜 榮 祚

東亞大學校 造景學科

A Study on the Conservation of Named and Physiognomically Perceived Landform

—case study of ‘MOK’-MAEUL(settlement name include korean character ‘mok’ which is landform and space like neck) in Kyongsangnam-do

Kang, Young-Jo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theory for conservation of named and physiognomically perceived landform. A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form and physiognomic perception of MOK(is landform and space like neck) in MOK-MAEUL(settlement name including korean character ‘mok’) in Kyongsangnamdo. The surveyed sites are 52 MOK-MAEUL. The MOK representing a particular landform is divided into 5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andform were analyzed. The residents recognized a MOK as a living form and thought that influenced their wealth and security.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역공간인식의 언어적 표현인 지명을 실마리로 하여 명명근거가 되는 지형공간의 형태고찰과 그 지형 形相의 相貌的知覺에 의거한 유물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마을 구성원간의 그

지형공간에 대한 행위의 금지 또는 집단 제약행위 등 공간의 聖化라는 宗教事象의 공간인식적 의미를 경상남도의 목마을을 대상으로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는 주민이 가꾸어온 장소성에 의거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保持하는 지형공간 보전 계획에 관한 논거의 개발을 목표로 한 것이다.

최근 골프장, 채석장, 또는 공업단지의 개발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

1) 본 연구에서 ‘목’ 마을은 지명의 語構成에서 목(또는 項)을 어간 또는 한정사로 하는 마을을 통칭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 개발행위는 마치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보증하는 듯한 논리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곳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키우고 가꾼 유서있는 장소와 지형공간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改變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개발원으로부터의 오수방출과 각종 소음 등 이른바 공해에 대한 집단진정과 개발 그 자체의 반대 운동을 통하여 자기들의 삶의 터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상실된 장소 또는 지형공간을 원래대로 복원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 개변된 뒤 새로이 마련된 공간에 자신들만의 장소를 얻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조와의 기억공간은 이미 상실해버리고 공간을 통한 기억의 공유는 단절되어버린 것이다.

계획가의 기능적인 토지관으로 보면 전혀 쓸모 없는 공간일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고향의 공간이미지를 형성하는 귀중한 기억공간의 골격이며 공간형태의 相貌에 의한 呪術的인 의미가 부여된 성스러운 神話空間이기도 하다.

공간계획에서는 이와같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겨진 공간감각을 잘 해독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공간이란 무엇인가를 考究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공간을 해독하고 의미를 부여한 공간에 대하여 그 의미적 특성을 음미하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형태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공간계획론적인 관점에서의 가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목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의 공간인식내용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따라서 다른 마을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공간적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지명을 수집하여 명명근거가 된 공간의 형태적 특징과 공간계획에서의 유의점을 고찰한다. 그리고 공간형태의 相貌에 의한 유물신앙 등의 宗教事象의 내용을 검토하여 목이라는 공간이 주민에 의하여 聖所로 意味附與된 목마을 경관의 地形的 要所임을 논증한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목마을의 수집

본 연구에서 「목마을」을 지명의 語構成에서 목(또는 項)을 어간 또는 한정사로 하는 지명을 가진 마을을 통칭하는 것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활목(弓項)」, 「큰목(大項)」과 같이 중요요소가 위치하는 語尾에 목(項)이 붙는 것과 「목섬(項島)」, 「목마을(項村)」과 같이 중요요소를 한정하는 語頭에 목(項)이 붙는 지명의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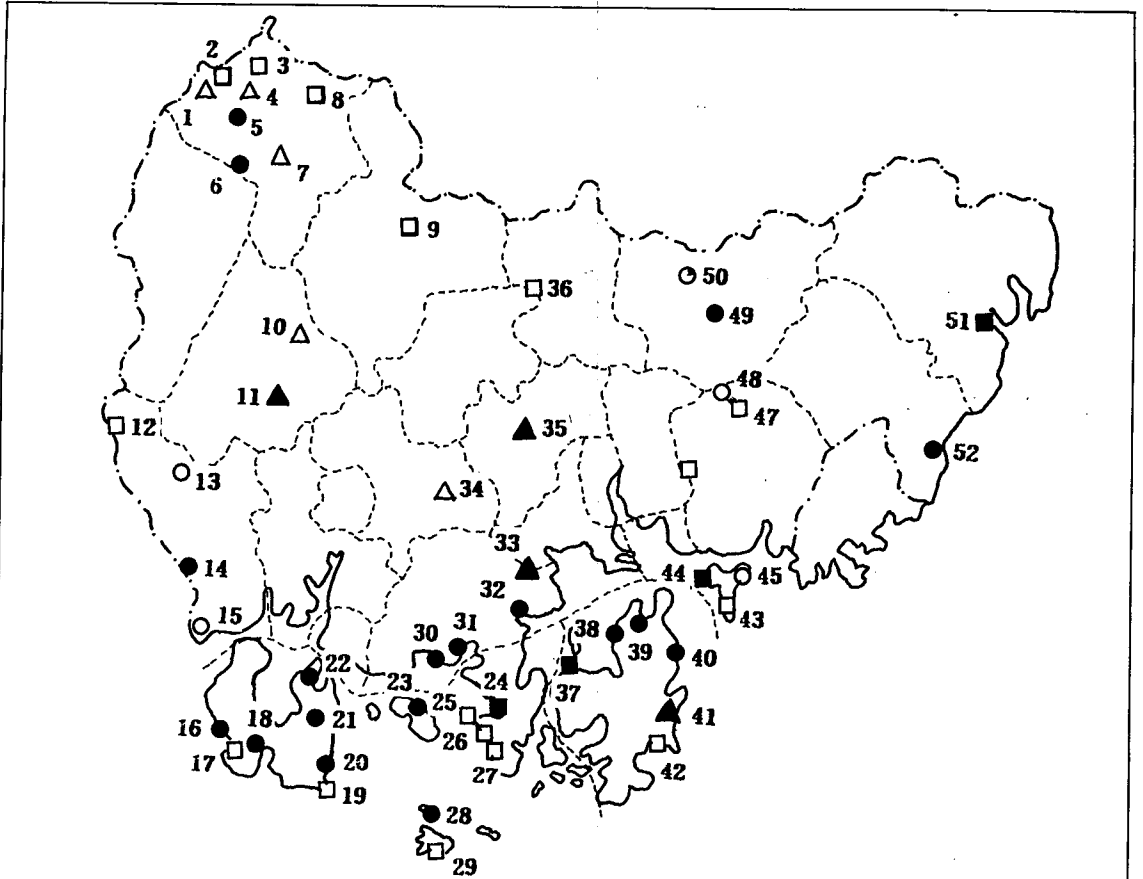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목마을은 한글학회編 『한국지명총람(경남편)』(총3권)에 올라있는 것으로 축척 1:25,000의 지형도로 그 소재지가 확인되는 52개소이다 그림 1은 본논문의 연구대상 마을이다.

2) 현지 조사

수집된 목마을은 道誌와 각 郡誌와 향토자료에서 각 마을의 지명유래를 정리하고 목의 지형적 특징을 지형도를 통하여 그 대략을 파악한 후 현지조사 때 주민으로부터 지형형태를 확인하였다. 목 지형의 형태적 특징은 사진과 스케치로 기록하였다. 또 목과 관련된 전설, 민간신앙(행위의 금기 또는 장려)을 지역 주민의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목의 어의적 의미를 사전적의미와 지명에서의 용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목마을을, 목이라 불리우는 지형공간이 실재하는 실제적 목마을과 마을의 입지가 주요 시설물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하여 명명되어 목이라는 지형공간을 保持하고 있지 않은 추상적 목마을로 분류한 후 공간형태를 고찰할 실제적 목마을을 추출한다. 그리고 실제적 목마을에 대하여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목마을 지명의 명명 근거가 된 목의 지형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특징과 공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의점을 고찰한다. 한편으로 목이라는 지형공간을 정신체로 상모하는 마을에 있어서 목 지형을 둘러싼 행위의 금지와 집단 제약행위를 목을 매개



1. 居昌郡 北上面 竝谷里 矢項(시미기)	19. 南海郡 三東面 瀾助里 沙項(홀개섬)	37. 巨濟郡 沙等面 城浦里 項島(옥섬)
2. 居昌郡 北上面 蘇井里 葛項(착미기)	20. 南海郡 三東面 松亭里 項島(옥섬)	38. 巨濟郡 河清面 柳溪里 西項(새암울)
3. 居昌郡 高揚面 弓項里 弓項(활목)	21. 南海郡 三東面 洞川里 簾項(노루목)	39. 巨濟郡 河清面 實田里 瓦項(왜꼬지)
4. 居昌郡 高揚面 農山里 巽項(솔모기)	22. 南海郡 昌善面 堂項里 堂項(담목)	40. 巨濟郡 長木面 大鋪里 湫項(본목)
5. 居昌郡 馬利面 卓鶴里 柄項(자라목)	23. 統營郡 蛇梁面 琴坪里 大項(큰목)	41. 巨濟郡 一運里 知世浦里 橋項(다리목)
6. 居昌郡 泗川面 量川里 馬項(말목)	24. 忠武市 坪林洞 葛項(갈맹이)	42. 巨濟郡 一運里 舊助羅里 項里(자라목)
7. 居昌郡 南下面 梁項里 梁項(살목)	25. 統營郡 山陽面 豐和里 項村(목골)	43. 釜山市 江西區 大項(큰목)
8. 居昌郡 加北面 朴岩里 於項(늘목)	26. 統營郡 山陽面 藍坪里 弓項(활목)	44. 釜山市 江西區 簾項(노루목)
9. 狹川郡 栗谷面 項谷里 項谷(목실)	27. 統營郡 山陽面 三德里 院項(원목)	45. 釜山市 江西區 項越(목넘)
10. 山淸郡 新等面 長川里 巽項(손목)	28. 統營郡 欲知面 老大里 灘項(얼목)	46. 金海郡 進永邑 德山里 소목
11. 山淸郡 新安面 新安里 項亭(목정지)	29. 統營郡 欲知面 西山里 項越(목넘)	47. 金海郡 翰林面 安下里 鳥項(까마귀목)
12. 河東郡 花開面 龍岡里 晚項(느린이)	30. 固城郡 三山面 米龍里 蛇項(뱀목)	48. 金海郡 翰林面 長方里 大項(큰목, 노루)
13. 河東郡 淸岩面 弓項里 弓項(활미기)	31. 固城郡 三山面 板谷里 簾項(노루목)	49. 密陽郡 密陽邑 賀谷里 龍頭목
14. 河東郡 金城面 鶴川里 鶴項(닭목)	32. 固城郡 東海面 壯佐里 簾項(노루목)	50. 密陽郡 府北面 大項7 大項(한목)
15. 河東郡 西東邑 新基里 弓項(활미기)	33. 固城郡 會華面 堂項里 堂項	51. 蔚州郡 溫山面 方島里 項島(목스미)
16. 南海郡 西面 西上里 簾項(노루목)	34. 普陽郡 寺奉面 武村里 竹項(뻬야)	52. 梁山郡 日光面 鶴里 項里(합포)
17. 南海郡 南面 德月里 巽項(손목)	35. 威安郡 伽倻邑 道項里 道項(길목)	
18. 南海郡 南面 竹田里 唐項	36. 昌寧郡 遊漁面 加項里 加項(더목)	

유형	실체적 목마을					추상적목마을
	땅목		물목			
	곳형	틈사이형	○	●	□	
기호	○	●	□	■	△	▲

<그림 1> 경상남도에서 목마을의 분포

로 한 마을 집단의 결속행위임을 고찰한다. 이를 근거로 목마을에 있어서 한 마을 집단의 결속행위임을 고찰한다. 이를 근거로 목마을에 있어서 지형공간은 마을의 아이덴티티와 공간안심을 保持하는 要所임을 논증하였다.

II. 본 론

1. 목의 語義의 意味와 목마을의 분류

1) 辭典으로 보는 목의 의미

지명에서 '목'은 한자로는 '項'으로 표기한다.

먼저 목의 한자 표기인 '項'의 의미를 검토한다.

『大漢韓辭典』(張三植, 1979)에서 보는 '項'은 「1) 목뒤, 목덜미. 2) 크다. 3) 조목, 항목」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大言海』(大槻文彦, 1982)는 「1) 목뒤. 2) 누울 때 베개를 대는 곳. 3) 옷이 닿는 목 뒤 부분」라고 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項은 생물의 몸통과 머리를 잇는 목(頸)을 지칭하고 있는데 특히 목 뒤 부분을 지칭하고 있다.

다음은 한글 '목'의 의미를 살펴보자.

한글학회가 펴낸 『우리말 큰사전』은 목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1) 머리와 몸사이를 잇던 잘록한 부분, 2) 목구멍의 준말, 3) 어떤 물건에서 1과 비슷한 부분, 4)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 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

신 기철, 신 용하가 펴낸 『새 우리말 큰사전』과 양 주동의 『새 국어 대사전』, 김 민수, 홍용선의 『신국어 대사전』도 한글학회의 해설과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 다만 『신국어 대사전』에서는 4의 해설을 「길의 긴요한 곳」으로 간단히 해설하고 있다.

우리말 사전의 해설에서 보는 '목'은 한자어인 '項'의 해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목 이외에, 사물 또는 공간의 형태가 목과 흡사하다고 하거나 특정부분의 空間布置가 생명체의 '목'과 같이 긴요한 곳일 경우 이를 지칭하는 말이다. 즉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1)의 해설 3과 4가 그것이다.

해설 3)은 생물의 목과 같이 잘록한 모양을 한 사물의 부분 또는 공간을 지칭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손과 팔 또는 발과 다리를 잇는 잘록한 부

분인 '손목', '발목' 또는 병의 잘록한 위 부분인 '병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은 생물의 목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경우에 사용된다.

해설 4)는 어떤 장소의 空間的立地가 주변공간과의 布置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의미 지워지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목이 좋은 가게'라는 말의 의미는 상점가에 있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치는 지점에 입지한 가게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눈에 띄이기 쉬워서 매출이 많은 가게인 셈이다. 그러나 그 장소가 어떠한 업종이라도 가게자리로서 적합한 '좋은 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가게의 영업 성격으로 보아 그 상점가에 오는 사람들의 눈에 덜 띄이는 곳에 입지한 경우가 '좋은 목'일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목'은 空間布置에 의하여 상대적 또는 합목적적으로 가치 부여되는 要所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목'은 생물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목과 같이 중요한 要所를 지칭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간명칭으로서의 목은 생물의 목과 형태적으로 類似한 공간과 기능적으로 相同의 공간을 지칭한다.

2) 지명에서 보는 목의 용례

지명연구에서 목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배 우리는 목을 '목 너머 마을'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지 않은 고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배우리, 1989). 양 주동은 「細長한 山狹」의 의미라고 하는 데(남해군, 1985), 여기서의 山狹이란 산의 능선이 주변에 비하여 낮은 부분이다. 따라서 이곳은 산 너머에 마을이나 중요 시설이 있으면 연락 통로인 고개가 되는 것이다.

善生永助는 『朝鮮의聚落』에서 마을 지명의 유래를 정리하면서 '項'字가 있는 마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먼저 「취락명에 이 글자(項: 필자 註)가 있는 것은 지형에 의한 것이다」라고 목마을의 명명근거를 밝힌 후에 이어서 「하천의 굴곡이 심한 곳에서의 길은 물길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형성된 목(頸)을 타고 넘어 곧 바르게 되어 있다.(원문을 필

자가 의역하였음)」라고 項의 공간형태를 하천의 굴곡이 심한 곳에서 보이는 舌狀의 땅을 가리키며 이곳을 생물의 목을 의미하는 頸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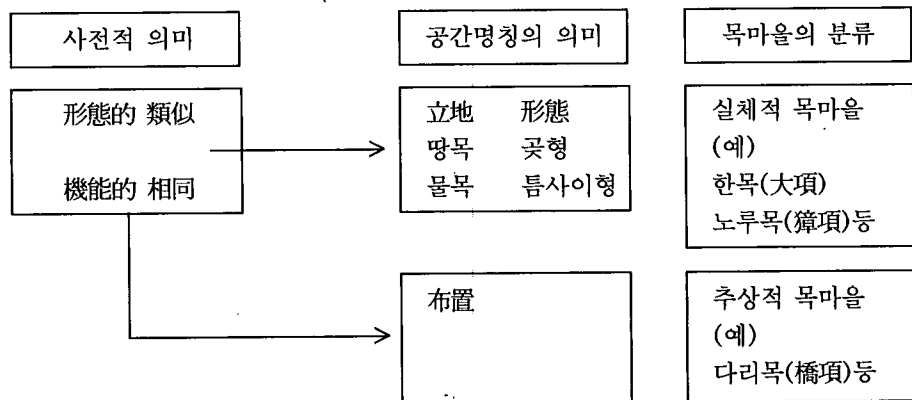
한편 목을 ‘마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도 한다(남해군, 1985). 국토지리원의 『지명유래집』에서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는 데 예를 들면 「손돌목(孫突項)」은 「술다」와 「돌다」와 「좁다」가 합성된 지명으로 물살이 빠르고 소용돌이 치는 좁은 곳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목은 수로가 갑자기 좁아진 부분으로 생물의 목 형태가 몸체에 비하여 가느다란 것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점에서 지칭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명에서의 목은 생물의 목과 유사한 형태적 특징을 지닌 지형공간을 지칭하는 말로서 능선의 낮은 고개나 舌狀의 지형, 그리고 수로가 급히 좁아진 부분 등을 가리킨다.

3) 목의 語義的 의미에 따른 목마을의 분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간명칭으로서 목은 공간이 생물의 목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경우와 空間布置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要所로서 가치 지워지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목처럼 중요한 곳 즉 생물의 목과 기능적으로 相同한 경우에 사용된다. 전자를 形態的類似에 의한 命名이라고 하고 후자를 機能的相同에 의한 命名이라고 하면 형태적 유사에 의한 공간명칭으로서의 목은 지명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크게는 고개 또는 舌狀의 지형과 갑자기 좁아진 수로를 들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각각 땅목과 물목으로 명명하여 목의 사전적 의미와 공간명칭으로서의 의미를 그림 2와 같이 정리하였다.

목마을은 마을의 주요지형공간이 이러한 목으로 불리우는 지형공간이 실재하는 실체적 목마을과 마을의 입지가 주요 시설물의 상대적 위치에 의하여 명명되어 목이라는 지형공간을 保持하고 있지않은 추상적 목마을로 나눌수 있다.



〈그림 2〉 공간명칭으로서 목의 의미

(1) 추상적 목마을

「~에 가는 도중에 있는 마을」, 다리나 堂, 정자와 같은 주요 시설물로 향하는 도중에 만나는 마을이다. 중요시설과의 상대적 위치가 강하게 인식되어 명명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52例의 목마을에서 다음의 4例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리목(橋項)’, ‘당목(堂項)’, ‘길목(道項)’, ‘정자목(項亭)’

(2) 실체적 목마을

목이라고 불리우는 지형공간이 마을의 내부 또는 마을과 근접한 곳에 실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48例의 목마을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공간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체적 목마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의 공간형태를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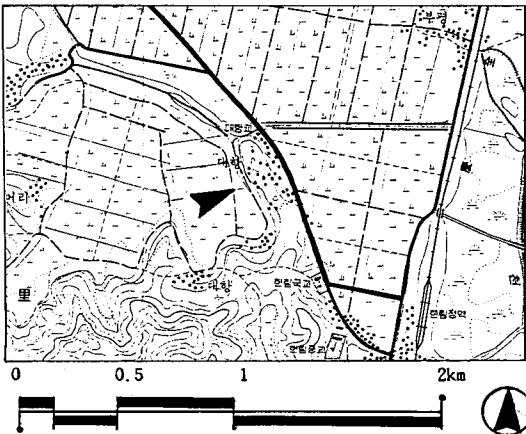
2. 목마을 지명의 명명근거가 된 지형의 특징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실제적 목마을(이하 목마을이라 함)은 목이라는 지형공간이 마을 공간 내부에 있든지 또는 마을의 거주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다. 목마을의 목은 그 입지로 보아 크게 땅목과 물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간 형태로는 꽃型和 틈사이型으로 가를 수 있다. 꽃型은 가늘고 긴 舌狀의 지형공간이며 틈사이型은 산의 능선이 낮은 곳 또는 수로가 갑자기 좁아진 부분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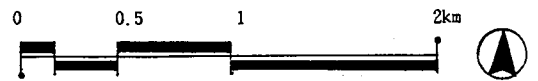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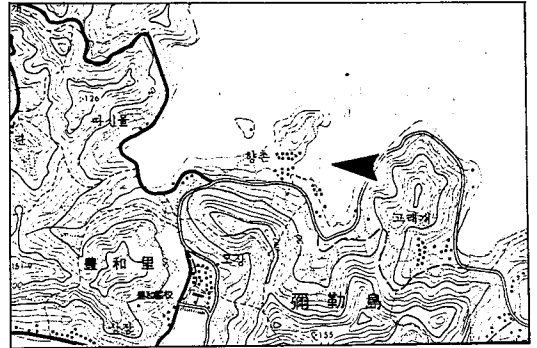
유형별로 대표례를 들어 공간형태의 특징을 고찰한다.

1) 땅목=꽃型

땅목=꽃型의 목은 低地에 뺨어내린 낮은 산자락을 이르는 것으로 주변이 평지이므로 눈에 띄이기 쉽다. 이 형에 해당하는 마을은 조사 마을 48개소 가운데 5개소로 확인되었다. 이 型의 대표례로서 金海郡 翰林面 長方里 大項(큰목, 노루목)마을을 들 수 있다. 그림 3은 대항마을과 그 부근의 지형도이다. 대항마을에 있어서 목이라고 부르는 지형은 마을의 뒷편에서 농지인 평지로 뺨어내린 가늘고 긴 능선이다. 이 목은 마을의 오른쪽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대항이라는 지명은 이 목이 길다라는 의미로 명명되었다. 마을 지명의 명명 근거가 된 平滑한 능선과 그 선단부는 보전대상이다.



〈그림 3〉 땅목=꽃型의 대표례(김해군 대항)



〈그림 4〉 땅목=꽃=틈사이型의 대표례(통영군 향촌)

마을의 거주역은 산 기슭에서 細長한 목까지 占地하고 있다. 목에는 산 기슭의 마을과 목 저편의 마을과 연결하는 길이 나 있으며 낮은 고개가 되어 있다. 그 통로는 土地改變이 있을 때에 도로용지 등으로 상실하기 쉬우므로 터널화하는 등 보전에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2) 땅목=꽃=틈사이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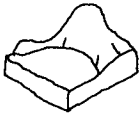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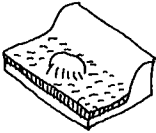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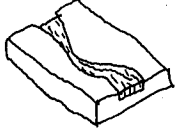
앞의 땅목=꽃型의 목 지형이 거의 직선상의 능선임에 비하여 땅목=꽃=틈사이型은 땅목=꽃型의 목과 같이 평평한 능선이나 단지 선단부분이 이르러서는 약간 낮아졌다가 다시 평평해지는 지형이다. 땅목=꽃=틈사이型의 마을은 18개소로 확인되었다.

이 型의 代表例로서 統營郡 山陽面 豐和里 項村(목물)마을을 들 수 있다. 그림 4는 향촌 마을의 지형도이다. 바다로 향해 뺨어 있는 능선을 목이라고 하나 정확하게는 생물의 목처럼 가늘어져 있는 부분을 지칭한다.

마을의 거주역은 주변에 비하여 낮고 평평한 목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에 占地하고 있다. 마을의 지명도 목물, 즉 목마을이라고 하니 목이 마을의 지형인식에 있어서 要所임을 알 수 있다.

땅목=꽃=틈사이型의 목은 그 선단부에 가까이 와서 약간 낮아져 있어서 선단부를 생물의 머리로 하여 그 지형공간의 윤곽선에 의하여 동물의 略畫의 形상으로 相貌하는 경우가 많다. 유물

(표 1) 목마을에서 보는 목의 지형형태와 그 개요

유형	땅		물		
	곳	목	틈사이		
블록 다이 어그 램					
지형 개요	평평한 사면으로 된 능선이 저지의 평야로 늘어진 가늘고 긴 썸狀의 지형이므로 의식화되기 쉽다. 목의 능선마루는 인접부락과의 통로인 고개가 되어있다. 토지 개변 때는 도로건설등으로 훼손되기 쉬우므로 텃넬화하는등 배려를 요한다.	평활한 능선의 선단부 부근이 약간 낮아져 있는 지형이다. 특히 이 부분을 목이라고 한다. 이 부분을 생물의 목으로 상모하고 정신체로서 인지하면서 행위의 공유로 聖化하고 있는 마을이 많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능선의 틈사이를 목이라고 한다. 목 마루가 주위에 비하여 평평한 경우에는 마을이 그곳에 접지한다. 그러나 급사면의 목은 인접마을과의 통로가 되는 고개이며 아울러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육지와 바로 앞의 섬과의 사이의 수면을 목이라고 한다고 목의 수면은 섬에 의하여 과도가 막혀 온화하다. 수심이 얕아서 매립되어 산업시설이 들어서 있는 마을이 있으나 수변레크리에이션 잠재력이 높은 부분이다.	하천의 河道가 갑자기 좁아진 부분을 목이라고 한다. 물살이 빠르고 물고기 그물을 놓는 장소이기도하다. 주민의 수변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친근한 공간이기도 하여 수변공간의 설계 때에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 정비를 요한다.
해당 마을	13, 15, 45, 48, 50 (5/48)(숫자는 도 1에 대응)	5, 6, 14, 16, 18, 20, 21, 22, 23, 28, 30, 31, 32, 38, 39, 40, 49, 52 (18/48)	2, 3, 8, 9, 12, 17, 19, 25, 26, 27, 29, 36, 42, 43, 46, 47 (16/48)	24, 37, 44, 51 (4/48)	1, 4, 7, 10, 34(5/48)

沙等面 城浦里 項島(목섬)과 같이 목이 매립되어 조선소가 건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림 7은 居昌郡 南下面 梁項里 梁項(살목)마을 부근의 지형도로 하천의 河道가 갑자기 좁아진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은 그 부분을 '목이 저 있다'고 표현한다. 이 부분은 河道가 급히 좁아져 있으므로 물살이 급하다. 따라서 상류에서 하류로 일반적으로 급히 흐르는 물의 흐름이 눈에 띄이기 쉬우며 또한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넣기도 하는 장소로 주민의 물놀이 등 水邊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친밀히 이용되었던 곳이다. 水邊공간의 설계에는 이와 같은 사정을 깊이 고려한 설계가 바람직스럽다.

5) 목마을의 명명공간으로서 목

이상으로 목마을의 명명근거가 되는 목의 지형공간적 특징을 표 1에 정리하였다. 목마을에 있어서 5유형의 목은 목마을 이외의 마을과 辨別하

는 귀중한 地形的要所이다. 따라서 목마을의 아이덴티티를 담보하는 중요한 장소이며 마을의 이미지 형성의 골격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목 형태의 相貌의 知覺

지형공간의 형태적특징에 의하여 목을 살아있는 생물 또는 물건의 모습으로 지각하는 것을 相貌의 知覺(physiognomic percep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미분화상태에 있는 유아나 미개인에게서 흔히 보이는 것으로 레비 브뤼일은 원시심성(primitive mentality)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대상의 정신성을 인정하는 애니미즘적인 지각은 사물의 정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 또는 하이데거와 같이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을 인간 생존의 도구적 존재로 보는 자연관(하이데거, 1927)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相貌를 띠고 있는 사물의 체험은 지성을 갖춘 감성이 예민한 성인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시인의 세계체험이 그것이다. 사물의 상모적체험은 그것이, 레비 브뤼일이 말한 바와 같이 인류의 공간공포에 따른 원시심성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재를 사는 어린이의 세계관이기도 하여 피아제는 이를 애니미즘 知覺이라고도 한다. 베르그송은 이러한 세계관을 죽음의 공포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하여 본능이 아닌 지성이 꾸며낸 虛構的機能(la fonction fabulatrice)이라고 한다(김형효, 1991). 이는 마르틴 부버가 『나와 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물의 편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듯한 감각이며 자연이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듯한 현상적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상모적 세계관은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의 의미를 무의미한 물질과 그것의 공간 배열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있는 타자의 존재로서, 그래서 도리어 공간안심감과 연결되는 것이다(中村良夫, 1982).

여기서는 목이라는 지형공간을 상모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마을에서 주민이 인지하고 있는 정신적 존재로서 목 공간에 대한 심성을 정리하고 그 공간이 주민에 의하여 성화된 곳이며 따라서

〈표 2〉 지형공간의 목을 정신체로 相貌하는 마을과 相貌對象

所在地(번호는 그림 1에 대응)	相貌對象
16. 南海郡 西面 西上里 獐項(노루목)	노루
21. 南海郡 三東面 洞川里 獐項(노루목)	노루
31. 固城郡 三山面 板谷里 獐項(노루목)	노루
32. 固城郡 東海面 壯佐里 獐項(노루목)	노루
44. 釜山市 江西區 獐項(노루목)	노루
48. 金海郡 翰林面 長方里 大項(큰목, 노루목)	노루
3. 居昌郡 高梯面 弓項里 弓項(활목)	활
13. 河東郡 靑岩面 弓項里 弓項(활미기)	활
15. 河東郡 河東邑 新基里 弓項(활미기)	활
26. 統營郡 山陽面 藍坪里 弓項(활목)	활
6. 居昌郡 渭川面 川里 馬項(말목)	말
14. 河東郡 金城面 鷄川里 鷄項(닭목)	뺨
30. 固城郡 三山面 米龍里 蛇項(뺨목)	소
46. 金海郡 進永邑 德山里 소목	까마귀
47. 金海郡 翰林面 安下里 鳥項(까마귀목)	용
49. 密陽郡 密陽邑 賀谷里 龍頭목	불특정
36. 昌寧郡 遊漁面 加項里 加項(더목)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지형공간의 가장 중요한 要所임을 지적하려고 한다.

목의 지형공간을 생물 또는 물건으로 지각하는 마을은 현지조사의 결과 17개소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실제적 목마을 48개소의 35.4%를 차지한다. 조사 결과 목 공간을 相貌하는 것으로 확인된 마을과 相貌對象을 표 2에 정리하였다.

지형공간으로서 목의 상모적지각은 지형의 윤곽선 형태가 이들 동물의 목(頸)과 흡사한데서 연유된 것이다. 조사된 지역에서는 그 상모대상이 주로 동물로 노루, 닭, 뺨, 소, 까마귀, 용 등이다. 가장 많이 출현한 것은 노루로 6개소이며 다음이 활로 4개소였다.

1) 목의 성화

지형공간인 목을 의지를 가진 정신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그 정신체가 주민 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宗教事象은 그 공간이 마을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聖

現(hierophany)의 공간(엘리아데, 1957)임을 웅변한다. 자연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는 자연을 인간과 꼭 같이 의지를 가지로 있는 擬似人格體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 자연의 인간에 대한 행위의 내용은, 특히 지형공간의 경우 윤곽선에 의하여 그려진 형상과 유사한 사물 또는 동물이 지니는 특징에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미개사회에서 흔히 보는 유물신앙과 특히 한국인에게는 보편적인 세계관이 되어버린 풍수지리의 物形地氣論의 영향으로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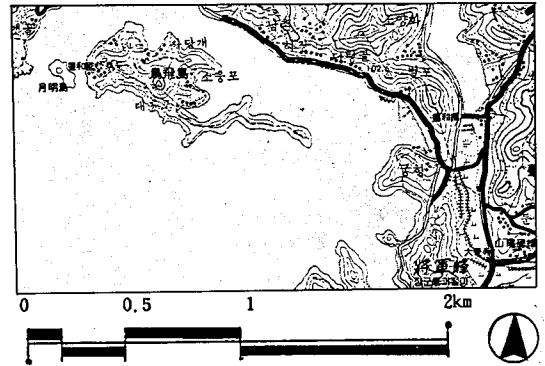
현지조사 때 주민의 청취조사로 수집한 목의 상모적 지각에 의거한 공간성화행위를 아래와 같이 행위의 금지(taboo)와 집단에 의한 除厄행위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① 행위의 금지

마을 구성원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금지행위를 통하여 그곳을 聖顯의 공간으로 분절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가운데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조사 확인된 것은 상여의 통과 금지와 금혼을 들 수 있다.

먼저 목 부분으로 상여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을로 昌寧郡 遊漁面 加項里 加項(더목)마을과 河東郡 金城面 鷄川里 鷄項(닭목)마을이 있다. 두 마을의 목은 마을의 경계에 해당하며 마을에서 다른 마을 또는 큰 길과 연락하기 위해서는 이 목을 지나는 것이 가깝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상여만은 이곳을 지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더목마을에서는 만약 상여를 목으로 넘긴 경우에는 그 가문의 종가가 망한다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망한 가문이 있는지의 여부는 현재의 주민으로서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지금도 상여는 다른 곳으로 마을에서 나간다고 한다.

하동군의 닭목도 이와 같은 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금기를 어겼을 경우에 더목마을과 같이 상가의 큰집이 망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을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목마을의 경우에는 목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생명체임에 비하여 닭목마을은 목이라는 지형이 신령한 힘을 가진 닭의 顯現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목에 집을 지으면 목이



〈그림 9〉 동영군 활목마을과 비조도 부근의 지형도

놀러진 닭에 의하여 병어리가 난다고 하는 옛말대로 그 집에서 병어리가 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상여의 통과금지행위는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

統營郡 山陽面 三德里 弓項(활목)에서는 지형형상에 연유한 금혼이 지켜진 예이다. 그림 9는 활목과 건너 마을인 비조도 부근의 지형도이다. 활목 마을의 지형이 마치 건너 마을인 비조도를 겨누고 있는 활의 形相인데 활과 새는 화살이 새를 쏘아 떨어뜨리는 상극관계에 있으므로 두 마을간은 혼인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금혼은 최근까지 지켜졌다고 하는 데 금혼이라는 행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마을의 공간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② 집단 제약행위

집단 제약행위는 지형공간 목의 훼손으로 인한 집단의 불안감에서 오는 제양의식을 완화하고 제약하는 행위를 집단이 공유함으로써 공간을 성화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확인된 것은 固城郡 東海面 壯佐里 獐項(노루목)마을이다.

고성군 노루목(獐項)마을은 작은 어촌이다. 마을은 해안에 면해 있으며 이웃마을과의 연락로는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배를 이용하던지 바위 투성이의 해안과 가파른 고갯길 밖에는 없어서 불편했다고 한다. 1990년 마을 앞을 가로 지르는 도로공사가 있었는데 이 때 좁은 고갯길이었던 목 부분의 사면을 깎고 넓혀 길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듬해 1년 동안 건강했던 주민이 죽는 일

이 연이어 다섯 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5명은 모두 사고사였는데 그 마을이 생긴 이래의 흉사였다고 한다. 마을 주민은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를 두려움에 떨면서 짐치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을길을 낼 때 목을 상한 노루의 재앙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노루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마을 청년회가 주춧가 된 곳을 하고 큰 가마술을 묻는 것으로 진혼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 이후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1992년 8월 현재) 그와 같이 급사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주민 김영식 43세로 부터 청취)

고성군 노루목 마을의 제액행위는 마을 주민 전체가 참가하고 청년회가 주춧가 되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연으로 부터의 재앙의식이 노인 등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비지성적인 사고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노루목마을에서는 제액행위라는 종교적행위가 일부의 주민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을 구성원 가운데 비교적 어린 연령층이 중심이 된 마을 전체의 행사로 주민 모두의 참가에 의하여 그 제액행위가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은 목이라는 공간에 대한 의식의 공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을 집단의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하는 요인의 심리적 제거에 대한 공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성역으로서의 목

목을 매개로 한 금지행위(taboo)는 그것이 현재로서는 비지성적인 태도임에는 틀림없다. 목마을에서 청취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그것이 비지성적인 태도임을 자인하면서도 그 금지행위는 엄격히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금지행위를 지키는 개인과 마을 집단간은 유기적인 결속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집단이 개인에게 부과한 금지행위의 의무이행은 개인간의 결속과 집단을 유지하도록 해 준다(김형효, 1991). 따라서 이러한 금지행위는 다른 마을의 구성원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목 마을에서의 목을 매개로한 금지행위는 가문의 번영 또는 마을 전체의 안녕을 담보하며 목이라는 지형공간은 마을 집단을 유지하는 상징적인 중심인

것이다.

또한 고성군 노루목 집단 제액행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목의 지형적 보존은 마을의 공간안심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마을 주민의 돌연한 사고사가 목의 훼손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민의 비지성적인 태도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이라는 지형공간이 마을 주민의 공간인식적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공간은 원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안정된 상태라고 여기고 있으며 훼손된 공간의 원상회로의 복원조차 허락하지 않은 강한 보존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쇠술을 묻음으로써 목이라는 공간이 정화될 뿐 아니라 목으로 顯現하는 생명체의 신체가 새로 탄생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쇠술을 묻는 행위를 통하여 목은 노루목 마을 주민의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액행위는 곧 공간의 창조행위인 것이다.

III. 결 론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목마을에 대하여 지형형태의 특징과 그 형태에 의한 相貌的知覺이라는 공간인식내용을 검토하여 목으로 명명된 지형공간이 목마을의 아이덴티티를 保持하는 중요한 要所임을 지적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목마을은 목이라는 지형공간과 近接 또는 그것을 內包함으로써 명명된 마을로 목이라는 지형공간은 크게 그 입지로 보아 땅목과 물목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공간형태로 보아 꽃형과 틈사이형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지명으로 명명된 공간은 그곳에 사는 주민에 의하여 지형의 특징이 해독되고 그것이 마을의 이름에 투영되어 동시에 마을의 이름에 의하여 지형이 보다 명확히 의미지워지는 것이다.

(2) 목마을에서 목을 의지를 가진 정신체의 顯現공간으로 相貌하고 행위의 금지 또는 재앙의식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간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약속하는 성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목은 마을이라는 집단

의 결속과 공간안심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이상과 같이 지역인식의 언어적 표현인 지명의 명명근거가 된 지형공간은 지역의 공간적 아이덴티티를 담보하고 있다. 또한 그 공간을 정신체로 상모하는 경우에는 그곳이 마을의 중심이며 주민의 공간안심을 제공하고 있는 근원지이므로 지형설계 등 경관계획에서는 공간형태의 보전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공간의식은 지명에 의하여 환기되고 전승됨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건설부 국토지리원(1987)「지명유래집」, 56.
2. 김 민수, 홍 응선, 배운학(1974)「신국어대사전」, 어문각, 496.
3. 김 형효(1991)「베르그송의 철학」, 민음사, 215-278.
4. 남해군(1985)「남해의 혼」, 194-195.
5. 멀치아 엘리아데(1957)「聖과 俗」, 이동하 譯, 학민사.
6. 배 우리(1989)“산이름의 뿌리”, 「월간 산」, 8월호, 조선일보사, 220-224.
7. 신기철, 신용하(1975)「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1185.
8. 양 주동(1975)「새국어대사전」, 한영출판사, 556.
9. 한글학회(1979-1980)「한국지명총람」, 경남편.
10. 한글학회(1991)「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428-1429.
11. 大槻文彦(1982)「新編大言海」, 富山房.
12. 張三植 編(1973)「大漢韓辭典」, 省音社, 1687.
13. 朝鮮總督府(1934)「朝鮮의 聚落(前篇)」, 115.
14. 中村良夫(1982)「風景學入門」, 中央公論社.
15. ハイデッガ(1927)「存在と時間」, 細谷, 龜井, 船橋 譯, 理想社.